

신앙 성장 시리즈 39

##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

David and Manasseh: Overcoming Failure



 한국오늘의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39

##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

David and Manasseh: Overcoming Failure

©1996, 2004 RBC Ministries,  
Grands Rapids, MI, USA

인 쇄 : 2012년 11월 24일  
발 행 : 2012년 11월 25일  
감 수 : 김상복 목사  
번 역 : 강희숙 목사  
교 정 : 이호찬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목사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 차례

발간사 / 4

서 문 / 5

## 므낏세

잘못된 출발을 바로 잡은 삶 ..... 7

## 다윗

자기보호를 위한 거짓말을 극복하기 ..... 31

도덕적 실패를 극복하기 ..... 48

표지 사진 : 구분형의 “해뜨는 어장”(남해안)

## 발간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면이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계속 잘못을 저질러 망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받으며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시작은 잘못되었어도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개선해 나가면 인생의 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화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르나세와 다윗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 책자에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갈 길을 보여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읽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누구에게든 건네주시면 또 다른 분이 좋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건네주신 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2012년 11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상복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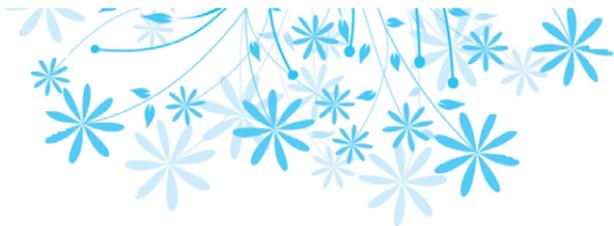
## 서 문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지난 몇 년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저항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항이 심할수록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저항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실망, 상실, 비판, 실패, 수치, 부도덕이라는 이런 강력한 저항세력에 의해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단련이 되면” 이러한 고난이 우리가 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히 12:11).

이 소책자에서는 주로 실패를 이겨내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던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므낫세, 두 사람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를 통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까지도 말입니다.

데이빗 로퍼





## 므낫세: 잘못된 출발을 바로잡은 삶

19 29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조지아공대가 로즈볼 미식축구대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팀의 수비수인 로이 리켈스는 조지아공대 팀이 놓친 공을 잡아 경기장을 가로지른 후 돌아서서 잽싸게 60미터 가량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거기는 캘리포니아대의 골라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팀 선수가 그에게 태클을 걸어 그가 조지아공대에 점수를 줄 뻔했던 순간에 막았습니다. 뒤이어 계속된 경기에서 조지아공대는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캘리포니아대 선수가 차는 것을 봉쇄했고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겔스는 오랫동안 “거꾸로 리겔스”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될 때마다 “아! 당신을 압니다. 로즈볼 축구대회에서 상대편 방향으로 달렸던 선수였잖아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패는 리겔스의 실패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비웃음을 받았던 일이 떠올라 잠들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다시 했더라면, 하고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도 많습니다.

작가인 루이자 플래처 타킹턴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회상했던 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땅이라 불리는  
 멋진 곳이 있었으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모든 골칫거리와  
 초라하고 이기적인 모든 슬픔이  
 문에 걸어둔 오래되어  
 낡은 외투가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져  
 결코 다시는 입지 않을 그곳.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때 이외에는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어거스틴은 “심지어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선함으로 이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심을 물려받은 므낫세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여호와께서 보

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하 18:3).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왕하 18:4-6)

히스기야 왕에게는 유다에게 활기를 되찾아준 역사적인 영적 부흥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겼던 우상을 없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개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라 1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나이 22세에 아버지가 죽고 젊은 나이에 단독 통치자가 되

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697년부터 642년까지 5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이었습니다.

므낏세는 신앙심 깊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며 영성이 충만하고 번영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와 미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앗수르의 공격으로 포위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신 것도 보았습니다(왕하 19:3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 실패한 지도자 므낏세

성경은 므낏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왕하 21:2).

열왕기하 기자가 말하는 “이방 사람”이란 타락하고 혐오스러운 가나안 사람입니다. 다음의 성경 내용과 같이 므낏세는 가나안 사람 못지않은 광기로 모든 율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왕하 21:3-7, 9)

위에 인용한 성경에 의하면 므낫세의 죄는 뒤로 갈수록 점점 사악해 집니다. 므낫세의 죄는 첫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 다.”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아세라신을 섬기기

위해 언덕 위 숲속에 세웠지만 히스기야가 파괴한 그 산당을 르밋세가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르밋세는 가나안의 최고신인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왕상 16:33). 바알의 배우자인 아세리는 여인의 모습을 가진 성과 풍요를 대표하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그녀를 기념하여 세운 기둥은 분명히 일종의 남근을 상징하는 형태입니다.

르밋세는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그는 별 점을 쳤고 일월성신 섬기기에 헌신했습니다(렘 8:2; 19:13).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들지라”라고 말씀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별들의 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불길 사이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역대하 저자에 의하면 “벤 힌놈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 했습니다(대하 33:6). 히브리 사

본에서는 그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임명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관직을 주어 궁정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듯이 타락한 군주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들였습니다. 그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음란물인 기둥에다 모든 추하고 외설적인 것을 바쳤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세웠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조금이라도 여호와를 경배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베니게 족속 등 이스라엘 주변 문화권의 이방신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의 꺾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결론지었습니다(왕하 21:9).

열왕기에서는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 책임은 모두 므

낫세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악행들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부연설명을 보면 끔찍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왕하 21:16)

므낫세는 무시무시한 분노로 선지자들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므낫세가 “히브리에 있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고 선지자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이 피로 넘쳐흐를 때까지 매일 그들을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유대의 오래된 전통서적인 탈무드에는 므낫세가 그의 스승인 이사야를 속이 빈 통나무 속에 넣고 톱질하여 두 동강을 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한 사람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을 거의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히 11:37).

## **므낫세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옷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 21:17-18).

여기에 뜻밖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5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든 음란한 욕망에 탐닉했으며 나라를 부패에 빠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한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쪽면만 봅니다. 하나님은 강한 인내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사 30:18).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의 “낮 선 작업”인 심판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  
니다. 열왕기상, 하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쇠  
퇴하여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과정을 추적  
하여 그 이유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기록  
된 이야기는 이 필요성에 맞게 줄인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자신의 주제에 부합하는 사실들만 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므낫세의 치적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역대하 33장으로 연결하여 보강해야 합니다. 역대  
저자의 기록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위 계  
보를 회복하려는 주제로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 주제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건들을  
선택했고 열왕기에서는 생략된 많은 사실들을 포함시  
켰습니다.

역대하 33장 1-9절은 몇 가지 사소한 사실이 다르기  
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열왕기하 21:1-9을 다시 쓴 것  
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  
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  
이 듣지 아니하므로 (대하 33:10)

하나님의 심판은 느닷없이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견고한 안전장치를 열어야 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아쇠는 머리카락으로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떠나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양털로 된 발과 강철로 된 손을 가졌다”라는 터키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수 1:5)라는 약속의 이면에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쫓아오고, 몰아대고, 끈질기게 조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삼빰으로 훈기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의 울림으로, 때로는 친구가 툭 던지는 말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연관된 사고에 의해, 때로는 책이나 설교나 만남의 기회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나는 여러해 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난 학생을 기억합니다. 그는 기념교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스탠포드 데일리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옮겨가지 전까지는 아주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주하는 말을 뱉으면서 후다닥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며 “용서하십시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장로교 선교사들로 대만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이 가장 조그만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으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계하시며 우리에게 그 저항의 결과를 견어 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우리의 머리를 돌려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  
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  
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  
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대하 33:11-12).

여기서 말하는 앗수르 왕은 아마 산헤립의 아들 에살

하돈일 것입니다. 에살하돈은 므낫세의 코에 고리를, 손과 발에는 수갑을 채우고 바빌론으로 멀고 험한 길을 가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12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코에 고리를 꿰는 것은 정복당한 왕에게 행하는 앗수르식 모욕 방법이었고, 앗수르의 그 습관은 유물에 삽화로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적대적인 모욕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몰락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므낫세를 하나님님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되돌아오는 길

회복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맥도날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거룩하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수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수치입니다. 수치는 그 근본 이유를 찾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려는 사람에게만 수치입니다. 겸손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진리의 목욕탕에 빠지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

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므낫세는 바로 그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대하 33:12).

요세푸스는 므낫세가 “자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정당화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서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변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교묘하게 설명하여 발뺌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씨 에스 루이스는 “참된 용서는 변명거리조차 남아있지 않은 죄를 계속 보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죄의 모습인 공포, 추함, 비열함,

악함까지 모두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과 완전히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므낫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분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질러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 영원한 사랑

해리 스토우 부인의 「영클 톰즈 케빈」이란 소설에서 톰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사악하고 너무나 사악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천성이라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사

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몰아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위협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 호의를 지속적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하나님은 외로움으로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벧전 3:18).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용서를 받아들인 후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유종의 미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용하여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므낫세를 한 번 봅시다. 그는 12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쪽 끝까지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와의 전을 건 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 지고 여호와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를 섬기라 하매 (대하 33:13-16).

므낫세는 그가 세웠던 이방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집에 두었던 소름끼치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사랑했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그의 우 상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괴했던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했습니 다. 그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 그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백성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혁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 3:8)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외모 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회개는 다만 죄 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 사고가 극단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의 약한 부분이나 이전에 우리가 넘어졌던 곳에서 자

신을 강건하게 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함으로 저절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실족하게 하는 상황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우리의 걸모습과 태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우리가 죄지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는 영향을 주는 영화나 책, 잡지,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뜻하며 집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정직하도록 지켜주는 사람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지 간에 과거의 불순종을 계기로 우리는 이전보다 강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도 선한 일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20년을 더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그리고 더 나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유다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

므낫세의 이름은 “잊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므낫세와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다’라고 쓴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1:34).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제프리 다머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다머는 17명의 젊은이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토막 내기도 했고 시신과 섹스를 하기도 했고 시신의 일부를 먹기도 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범행 현장을 폭로하며

다머를 국가적인 악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위스콘신에 있는 컬럼비아 교정센터에서 재소자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옥으로 곧장 가게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어느 특별기고가 컬럼니스트는 어둠의 세력에게 “체프리 다머를 제발 데려가라”라고 걱정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같이 다머는 감옥에서 성경공부반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공개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조용히 순응했고 심지어 한 재소자가 예배 중에 그의 목을 베려고 시도한 후에도 그랬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의 속마음도 진심이었다면,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를 볼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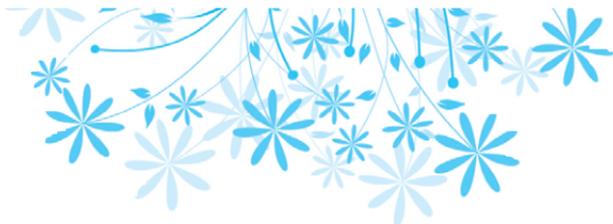
## 후일담

1929년 로즈볼 경기의 중간 휴식 시간에 리겔스는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엔젤레스 캠퍼스의 라커룸 구석에서 타월로 머리를 감싸고 숨어있었습니다. 그의 코치 님스 프라이어는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그 팀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3분 전에 코치는 조용히 리젤스에게 말했습니다. “전반전에 뛰었던 팀이 그대로 후반전에 출전한다.” 리젤스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운동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팀과 학교와 저 자신에게 수치를 안겼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프라이어는 말했습니다. “리젤스, 경기하러 들어가. 이제 겨우 반이 지났을 뿐이야.”

얼마나 훌륭한 코치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십니다.



## 다윗: 자기보호를 위한 거짓말을 극복하기

**실** 패와 성공이 토론 화제가 될 때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사건은 다윗과 사울이 결사적으로 쫓고 쫓기는 게임을 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찾아 사울은 다윗을 쫓는 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는 장소와 숨는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탈진하였습니다. 그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 이 시기에 쓴 노래들은 슬픈 시편들입니다. 시 속에는 암울함과 절망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  
으시나이까 (시 10: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  
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  
13: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  
지 아니하시나이까 (시 22:1)

### 다윗의 위험한 결심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러  
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  
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

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삼상 27:1)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거나 그의 참모들에게 의논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삼상 23:2, 4).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자신의 두려움에 억눌려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그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어느 정도 황급하게 서둘렀음을 암시합니다. “나는 곧 도주해야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해!”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나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골칫거리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와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하여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혼자들이 영구히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휘둘려 지친 순간에 오히려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 배우자를 찾아 정착하는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순간적인 좌절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발끈하여 좋은 직장을 떠나 이제는 일자리가 없거나 바람직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 절망적인 자신들을 발견하는지 아시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나쁠 때 결혼생활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그 결정을 후회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열매 맺는 사역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16세기에 스페인 북부 바스크지방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이그나티우스 로올라는 「영적 훈련」(*The Spiritual Exercises*)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는 위로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이 고무됩니다. 믿음과 희망, 자선, 내적 기쁨들이 영혼을 고무시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다른 하나는 황폐함입니다. “영혼이 어둠 속에 있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세상적인 일에 강하게

쏟리고, 혼란으로 인해 침착하지 못하고, 유혹으로 신앙을 잃을 때 황폐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냉담하고, 열의 없이 시들하고, 슬프고, 이럴테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영혼이 황폐할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결단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굳건히 서야합니다. 결심과 결정이 그를 황폐하기 전의 날로 시간으로 되돌려주거나 혹은 그가 지켰던 계속적인 위안으로 인도해줍니다. 선한 영이 우리를 위로받도록 이끌어주듯 황폐함 속에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안내하고 권고합니다. 악한 영의 권고를 따르면 그 사람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확한 옳은 길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올라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폐함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결심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황폐함에 대항하는 우리의 행동을 굳건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자신을 살펴보고 고백을 계속하면 굳건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시 5:3; 27:14; 33:20; 37:7, 34; 38:15). 블레셋으로 가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다윗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그림자보다 블레셋이 더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기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삼상 27:2-4)

### 다윗의 불안감

비록 점점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가드에서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그의 주거지역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자치권과 독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왕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다른 곳으로 살 곳을 옮겨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 신중한 부탁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27:5-7)

드디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공포에 떨며 도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화로운 작은 모퉁이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녀들은 햇볕아래 앉아 한가로이 애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공격과 약탈을 계속하는 대신에 들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시글락에서 한동안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는 무익한 불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시글락에서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고 노래도 전

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가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표류는 그의 혼자만의 실패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을 영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장소인 기업 밖에 있었습니다. 그 곳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삼하 5:21).

하나님을 떠나 표류하는 동안 다윗은 점점 안정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잃으면 항상 우리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 다윗의 위협적인 습격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겟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겟과 겐 사람의 네

집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삼상 27:8-12).

다윗은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가며 약탈했고 약탈한 전리품을 유다에 있는 그의 혈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삼상 30:26). 그러나 위의 이야기 속에는 끔찍한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도록 남자, 여자,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몰살하는 정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동사 attacked, leave 그리고 took는 문법학자들이 “반복동사”라고 부르는데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블레셋 영토에서 살고 있는 동안” 약탈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몰살하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추월차선으로 달렸습니다.

## 다윗의 속임수

왕의 가신으로서 다윗은 그가 치르는 전쟁을 보고하고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동맹국 겐족과 여라무엘족을 공격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기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고 속이는 일로 그의 성격이 비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의 민족과 관계가 소원하고 이제 전적으로 그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보고를 다윗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삼상 27:12)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라는 구절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혼인 다윗이 이교도 왕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습니다. “연단하는 불에 의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연속된 거짓으로 인해 사악해진 영혼은 계속하여 거짓을 행합니다.”라

고 티 에스 엘리웃이 말했습니다.

### 다윗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아벙에서 힘을 모아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왕국이 붕괴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포기하고 다윗과 한 편임을 인정하는 막강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편이라는 생각에 흡족해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스드라엘론 평야를 가로질러 이스라엘을 치려는 목적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최후의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에게 왕을 따라 전장에 나가도록 강요했고, 다윗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고 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가 섬겼던 왕 사울과,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하여 자신이 불러들인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구출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야 할 때는 아마 이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에프 비 메이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지른 실수와 죄 때문에 당신이 이와 같은 잘못된 자리로 떨어졌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당신의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고 구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무너뜨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날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시글락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겟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

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  
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삼상 30:1-4)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3일 동안 길을 걸어와 지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자녀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시글락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지평선 위로 깃털 모양의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시글락까지 남은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온 도시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인질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행복한 재회를 기대했지만 무서운 침묵과 황폐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나이든 사람들만 남아 있어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돌아서서 말없이 분노에 찬 눈길로 다윗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폭력을 쓰지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은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남겨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다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가 느낀 소외감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개인적으로 잃은 것도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전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아말렉 사람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이미 멀리 갔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빼앗겨 버린 삶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양심은 깨어나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중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기스를 배반했고 블레셋 동맹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마을 전체를 학살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마을과 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 다윗의 회개

비참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윗은 울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인간으로

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 15:13)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삼상 30:6)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찾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의심 없이 다윗이 반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신앙을 잃고 일그러지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이 도움을 청할 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의 강한 손을 잡아야합니다. 마음에 실패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께 와서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암울했던 시기에 여러 번 그의 힘을 주었던 용서와 회복의 약속으로 그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웠던 그 시절에 자신이 썼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시를 회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암담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도와주었는지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신앙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실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온통 좌절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중심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 자답게 강건하라”(고전 16:13)라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 하십시오.

### 다윗의 회복

다윗은 마침내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아말렉이 훔쳐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삼상 30:18-19).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실패가 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문제나, 사업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잃은 평판이 이 생애에서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 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이 알려지겠지요. 우리는 권력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부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게 하면 실패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허락하신 것을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단연코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훨씬 더 좋을 것을 위한 것임을 믿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공에서 배우는 것보다 절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알게 됩니다. 실패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 도덕적 실패를 극복하기

나는 친구들이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결혼생활을 위한 노력을 엉망으로 만들고 일시적인 사랑놀이에 빠지게 할까요? 다윗을 예로 들어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름답고 젊은 아내 밋세바에게 빠졌습니다.

“봄날에, 왕들이 출전할 때”(삼하 11:1)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봄날에 숙명적인 나른함 속에서 다윗의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2절)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다가 아래로 이웃 마당을 내려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도시를 보다가 그의 시선은 목욕을 하는 젊은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2절).

만약 그 여인이 정숙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시절에는 집 안에 급수와 배수를 위한 배관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을 둘러친 마당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3절)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한 사람이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 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3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사람으로 왕의 전용 경호원 중 한 사람이며 다윗의 용감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23:39).

어쨌든 다윗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한 번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또 다른 잘못을 불러들였습니다.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

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1:45).

다윗은 자신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밋세바의 남편은 랍바에 있는 암몬족 도시를 포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서너 달은 전쟁터에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곧 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을 수는 없었습니다. 간음은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인 다윗은 그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피할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 우리아를 임무에서 면제하여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를 밋세바가 있는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용사가 도착했을 때 다윗은 보고를 받고 곧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8절)라고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왔습니다”(9절).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는지 묻는 왕에게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 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11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11:12-13).

우리아의 명령을 받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아내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우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설득하려고 다윗이 거듭 노력했지만 엄격한 늙은 헛 사람 우리아는 거절했습니다. 그를 술 취하게까지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아는 그의 침낭을 펴고 궁정 수위실 바닥에

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절박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15절)라는 명령을 내려 살인을 부탁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요압은 다윗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어서 계획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었드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16-17절).

요압은 전령에게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들려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전사자가 많은 것을 문책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아도 전사했다고 서둘러 보고했습니다(18-22절). 다윗은 요압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25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밧세바는 남편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짧은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

니라”(26-27절).

다윗은 과도하게 서둘러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은 부적절한 행실을 합법적인 관계로 만듭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27절).

1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의 기분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시 32:3-4)

양심의 가책으로 그는 계속 편안하지 못했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비참함을 느꼈고 밤마다 텅굴고 뒤척였습니다. 근심은 그의 활력을 빼앗아 갔고 우울증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솔직하게 사실과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다. 더 정확하게하기 위해 그는 진실을 아는 선지자 나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단은 목자였던 왕에게 거대한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남자의 이야기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유한 남자는 자기 집에 들른 지나가는 여행자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양을 잡아 대접했습니다(삼하 12:4).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덕적인 분노로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5절).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훔친 죄로는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의하면 도둑은 주인에게 양 한 마리에 네 갑절인 양 네 마리를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라고 말했습니다 (6절).

나단은 다윗의 평결을 원래의 문제로 끌어 왔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

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삼하 12:7-9).

자신의 부패를 정면으로 마주 대했을 때 다윗의 방아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손에 얼굴을 묻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13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말하거니와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렸던 재앙의 전조를 곧바로 취소하셨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들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

사도 요한이 약속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일 1:9). 행복이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  
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  
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2)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나단은 그가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  
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같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  
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  
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  
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의 원수가 크게 비

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  
우리이다 (삼하 12:10-12, 14)

다윗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  
다. 그의 가족의 삶과 정치적 생애가 그 시점 이후로 약  
화되었습니다. 나단이 예언한 것은 모두 실현되었습니  
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  
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그러나 다윗은 타락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한다면 아무리 여러 번 실족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씨 에스 루이스가 썼습니다. “집에 도  
착할 즈음엔 물론 흙투성이에다 너털너털하게 해진 옷  
을 걸친 자녀가 되겠지만... 파멸의 길로 가는 유일한  
일은 화가 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 불가피한 결과의 법칙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또 내 친구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붕괴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천 번의 작은 도덕적 타락이 모여 서서히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계획해서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일은 처음에는 뭔가에 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끌리는 것은 욕망도 아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랑의 열병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심하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나 말을 잘 들어주고 보살피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끌리는 느낌의 유혹을 조금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 끌리는 느낌은 환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소설 속 불륜 이야기는 항상 정당하고 진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자기기만입니다. 환상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이 줄어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틀 안에서 열망에만 귀 기울이게 되고 저항하려는 의지는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적 갈등, 결혼생활에 대한 실망, 또 다

른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만나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눔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서로의 사랑이 필요한 외로운 두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불륜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사업상의 압박이나 혹은 우리 배우자의 취약점 같은 다른 사건들을 비난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의 핑계가 됩니다. 모든 일들은 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압니다. 우리의 의지가 온화해지고 일들을 바로 세우려는 순간이 옵니다. 그 때 우리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이 쇠붙이처럼 경직된 채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형태와 성질을 바꾸고 암울한 자기사랑과 끔직한 잔인함으로 진화해나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에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부정합니다: “아무도 없어!” 다음으로 우리는 본심을 속입니다: “그냥 정직한 관계야.” 마지막에는 우리의 속임수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빛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나쁜 짓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 사함과 비할 데 없는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을 아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엄청난 죄를 인정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며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은 발각될까봐 노심초사 하거나 발각된 결과로 오는 고통입니다. 그 결과로 죄와 근심과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나타나는 근심은 반대로 죄 자체에 대한 근심이며 죄로 인

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웁니다.

여기에 바울이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후 7:11).

다윗이 스스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을 구별해서 찾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으로 인해 슬퍼하기보다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한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는 궁극적으로 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악행

을 그분이 언약하신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  
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와 실패하는 자의 하나  
님이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 신앙성장 시리즈 -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제별 소책자

- |                                    |                          |
|------------------------------------|--------------------------|
|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절판)                    | ⑩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
|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절판)               | ⑪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
|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절판)                   | ⑫ 교회 지도자의 자격             |
| ④ 복 있는 사람(절판)                      | ⑬ 갈등 해결의 방법(절판)          |
| ⑤ 균형 있는 가정생활(절판)                   | ⑭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절판)  |
| ⑥ 왜 살아야 하나?(절판)                    | ⑮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절판) |
| ⑦ 행복한 결혼생활(절판)                     | ⑯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
| ⑧ 남자다운 남자(절판)                      | ⑰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 ⑨ 여자다운 여자(절판)                      | ⑱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
| ⑩ 걱정 없이 살고 싶다(절판)                  | ⑳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절판) |
| ⑪ 다시 찾은 사랑(절판)                     | ㉑ 금보다 귀한 것               |
|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㉒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
| ⑬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 ㉓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
| ⑭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 ㉔ 스트레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
| ⑮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절판) | ㉕ 분노가 타오를 때              |
| ⑯ 결혼의 약속(절판)                       | ㉖ 말이 상처가 될 때             |
| ⑰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절판) | ㉗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
| ⑱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 ㉘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인가?   |
| ㉑ 균형있는 기독교                         | ㉙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
|                                    | ㉚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        |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뒤표지의 헌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